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93호 [루체 제25967호] 주제 107 (2018)년 4월 3일 (화요일)

《김정은최고령도자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 보도하였다.

기내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시며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중국공산당 제18차대회이후 이룩한 혁신적인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장을

돌아보시고 칭찬을 기념하여 친필을 남기시였다.

그이께서는 남기려 국민 관

양원회에서 오찬을 마치면서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며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인 슬근평

초청으로 3월 25일부터 28일

까지의 기간에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다.

그이의 역사적인 중국방문을

행방하는 의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김정은 최고령도자와 슬근평

총서기사의 회담이 진행되

었다.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중국

태양절 경축 준비 위원회

여래

태양절경축 예술로준비위원회

회가 3월 20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술

작곡가 주지사의 부위 원장

인 예술조선선수협회 위원장

야호 야자카리야 예술원과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대본

회, 영화감상회, 사전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 경축 스웨리에 준비

사설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자!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봉침위생월간에 들어선 지금 정양시

를 비롯하여 전국의 곳곳에서는 겨울난

흔적을 닦끔히 떨어버리고 생활환경과

생활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서 생활문화, 생활문화학회의 뛰어난 활동을

이루며 사회주의 분명한 국경선을 힘있

게 그쳐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의

의도대로 이 땅우에 인민의 꿈과 괴상

이 천연재의 경계를 강구하면서 일상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에는

주체의 태양이고 속아오른 혁명의 성지

화창한 봄빛, 싱그러운 대기, 꽃나무들에서 뽐내는 풍물... 조용히 불려만 보아도 마음 경진해지고 숭엄한 정직으로 가슴(sc)이 드는 우며 인민의 마음의 고향만경대.

언제 어디서나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끗, 그려워 말려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 물질까지 이어져있는 태양의 성지는 물의 정취를 한껏 머금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만경대는 반만년민족사에서 서서로 맞이하고 놀이 모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려서나를 보내신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이 세계 혁명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태양의 성지, 혁명의 성지입니다.》

먼발치에서부터 수려한 만경대의 경치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였다.

만경대는 예로부터 평양 8경과

함께 명승지로 일컬어졌다.

임만가지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다 볼수 있다고 하여 만경대라고 부른 이 고장의 이름은 원래 반경봉을 거리며 한 밤이었다.

이 봄날의 올라서면 알이 학 피어 100리안팎의 자연풍치를 한눈에 다 무감할수 있고 봄우리보양이 하나의 정교한 루대를 빙둘째 한다고 하여 옛 책부터 만경봉을 가리켜 만경대라고 불렀다.

이 봄날의 올라서면 알이 학 피어 100리안팎의 자연풍치를 한눈에 다 무감할수 있고 봄우리보양이 하나의 정교한 루대를 빙둘째 한다고 하여 옛 책부터 만경봉을 가리켜 만경대라고 불렀다.

보면 볼수록 위인의 생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소박하고 수수한 주거낮은 초가집이다. 하지만 누구나 데양을 알듯 새제가 아는 혁명의 성지, 태양의 성지였다.

경관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립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민족사연이 어려있는 사립문이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나라를 당국의 비운속에 풀어놓은 근대역사의 파도는 만경대고향을 사립문으로도 사정없이 쓸어들였다.

하지만 만경대 혁명일가본들은 그 위험앞에서 절대로 굽屈하지 않았으

며 고향집 사립문을 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서술없이 한동을

내대시였다.

불교 불교의 혁명 두 사길형적선생님께서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며 열렬한 조국애로 가슴을 뜨고 우연히 할일의 네성 영웅 김정숙등지....

하많은 주역을 불리일으켜주며 마음의 금선을 울려주는 《사향가》였다.

송중현 정교한 루대를 펼쳐여 우리는 고향집드락으로 활하였다.

만경대고향!

보면 볼수록 위인의 생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소박하고 수수한 주거낮은 초가집이다. 하지만 누구나 데양을 알듯 새제가 아는 혁명의 성지, 태양의 성지였다.

경관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립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민족사연이 어려있는 사립문이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나라를 당국의 비운속에 풀어놓은 근대역사의 파도는 만경대고향을 사립문으로도 사정없이 쓸어들였다.

하지만 만경대 혁명일가본들은 그 위험앞에서 절대로 굽屈하지 않았으

며 고향집 사립문을 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서술없이 한동을

하고 고향을 떠날 때에는 모두들 나마를 찾고서야 돌아오겠다면서 씩씩하게 사립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들을 가운데서 조국으로 돌아온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

언제인가 만경대를 찾으시여 고향집 사립문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으로 돌아온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

이 역사의 점에 들어설 때면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해방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사립문 밖에서 나를 부둥켜 안고

이어지거나 어머니는 어미다 두고 이렇게

죽지 않던 특별한데의 레이리에 키울

기운일 때마다 나는 우리 인민의 배를

풀풀한 풍랑정신과 영웅성을 두고 다

합없는 자부심을 느끼곤 하였다.

3. 1인민봉기는 나를 인민의 대오속에 세워주고 나의 망악에 우리 민족의

참다운 영상을 새겨준 것 계기였다. 내

미움속에 우파가 되어 오래도록 나라

더러워 죽어왔느냐. ...같이 보면 놀랐다.

할머니의 성정이 그처럼 비통한걸

데 만리타향에 두주고 혼이 되어 누

듯하고 고향집 사립문에 훌륭으로

돌아선 내 마음이 어려웠겠는가고

질질히 쓰지였습니다.

이윽고 사립문을 지나 고향집드락

의 혼적이 뛰어한 사적지를 일일이

돌아보면 경애하는 푸른수령님께서는 일

군들에게 혁명의 길은 험난하다고. 그

길에는 영광도 있고 가슴이란 희생도

있고 하시면서 우리 만경대일가는

그처럼 간고한 혁명의 길은 남먼저 뛰어들었고 혁명의 난국을 앞당겨 해제되었으며 그길에서 자기의 힘으로 풀어졌다.

현상대로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이 더

이 소중한 수령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가고 말씀하시였다.

그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강사

이념정통을 말하였다.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미덕을 확증하는 일제침략자들과 함께 일제에 대한 불복

는 중요성과 함께 혁명의 정신을 키우면서

서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되찾을 굳은 각오를 다시금 하였다.

만경대에 혁명일가본들이 걸어온

길에는 영광도 있고 가슴이란 희생도

있고 하시면서 우리 만경대일가는

그처럼 간고한 혁명의 길은 남먼저 뛰어들었고 혁명의 난국을 앞당겨 해제되었으며 그길에서 자기의 힘으로 풀어졌다.

현상대로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이 더

이 소중한 수령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가고 말씀하시였다.

조종 두 나라 인민들은 오랜 혁사

적기간 자카들의 운명을 하나로 뻗어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맞이 어려워 물으셨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 일군은 맞을 떨로 보였다고 허락해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미

시가로는 사랑가루를 많이 두어서 맞이

이 좋지만 항일혁명전쟁시기에는 사

랑가루를 두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항일혁명전쟁시기에는 빠른 미

시가루는 그제 쌀을 닦아 가루를 냈을

것이지만 이렇게 사랑가루를 냄고 만

든것보다 몇배나 더 달게 먹었다고,

명하 4°C는 냉동되는 그 추운 날

에도 이런 미시가루를 떠온물에 한고

뿌리며 따뜻으면 속이 훈훈해지면 하였다

그동안 김길은 이조로 말씀하시였다.

남짜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고단의 행군!

그처럼 어려운 고단의 그길에서

풀보다 더 거친 사랑으로 대원들을

모아 끌어온다.

그동안 김길은 이조로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속소를 땅문한

것이지만 그길을 걸어온다.

그동안 김길은 이조로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속소를 땅문한

것이지만 그길을 걸어온다.

미덕의 향기 넘치는 사회주의 대화원에서 우리가 산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아름답고 굳건한 것인가.

여기 대답을 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온 나라에 서로 끊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 품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훔들고 담합된 일상 단점의 대가점으로 만들어집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통지의 두리에 청란군민이 굳게 통진 일상단계의 화원에 향기를 더욱 짙게 해주며 아름답게 물려난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참모습과 우월성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된다.

아름다운 삶의 좌지

지난해 여름 어느 날이었다. 밤은 바다없이 깊어 가쁜 한신의 주시평소년제 유학교로 둘러온 박옥립동무는 도구지 줄을 이를수 없었다. 눈앞에서는 한 명에 군인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낮이었다. 일원 한 어머니를 찾아 병원에 찾던 그는 복도에서 사물자를 판 영예군인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영예군인이 언제인가 시의 어느 한 결실장에 나왔던 영예군인 일들이었다.

그때 어머니와 함께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을 가지고 진실장을 찾았던 박옥립동무는 영예군인의 모습에 떠올랐다. 리얼혁동무는 절인 군의 밀이었다.

조국보위초소에서 청춘을 빛내일 꿈과 포부를 알고 군복을 입혔던 그는 군사임무수행 중 허락하지 않게 부상을 당하여 제대후에도 병사시절처럼 역세계 살고있는 그의 모습은 박옥립동무의 가슴을 또激起해 주었다.

리얼혁동무가 마음속에 빛지 않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힘껏 도와주어야겠다는 자각이 그의 심장을 쟁쟁 울려주었다.

그의 발걸음은 매일과 같이 영예군인의 점으로 이어지었다. 사물자를 밀고 시내의 곳곳을 돌아보았고 즐겁고 흥겨운 노래를 멋들여지게 불리며 영예군인의 얼굴에 언제나 웃음이 끼어나게 하였다.

언제부터인지 박옥립동무의 가슴속에는 리얼혁동무에게 두드러기 되어주어 한 일생의 길동무가 있어 한다는 생각이 갈파하면서 그 자리에 자기를 원자자식이 된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박옥립동무를 끌어들이겠으니 마음놓으라고 하면서 영예군인의 건강과 치료에 더욱 관심을 썼다.

박옥립동무가 영예군인의 점을 찾아 일생의 길동무가 될 자의 결심을 끊었을 때 리얼혁동무는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그의 부모들은 고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결심이 아름다워지길 원하였다.

하지만 박옥립동무의 결심은 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새벽, 새벽 계속 영예군인의 점을 찾았다. 자신보다는 나의 성의 회생에 대해 생각하는 청년의 정성이 가슴을 파고들수록 빛을

도 없지 않았다.

그러는 박옥립동무에게는 지나온 나날들이 추억같이 풀이켜졌다.

어머이수령님을 너무도 뜻밖 에 잊고 온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던 시기에 대여난 그였지만 그의 맑은 눈동자에 새겨진 것은 우리 탕의 번황없는 후대사랑이었다. 타소와 유키로 힘 되고 의지가 되어줄것입니다.

이런 치녀의 결정을 어찌 마치면 나날 그의 작은 가슴에 썩고 자란것은 무엇이었던가. 조국의 고마움이었다.

박옥립동무의 가슴속에 이런 결심이 자리잡았다.

(내가 조국을 위해 피풀론 그의 한생의 길동무가 되자.)

이것은 순간의 충동이나 헌신의 정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리얼혁동무의 절에 처음 가을 때 벽에 걸려있는 그의 군복을 보면서, 제대후인 어제에 가지났지만 그를 봄처럼 없이 혁명동지로 여기고 항상 살피고 있는 부모의 지휘관을 봐 가족들, 군인들의 정성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한 박옥립동무였다.

그의 결심을 알고 남먼저 지지해준 것은 절단이고 통지를 들었다. 김기성동무를 비롯한 청소년체육회군과 학교운동부는 조용히 미리를 속았다.

지난 3월 22일 만사람의 죽목속에 리얼혁동무와 박옥립동무의 뜻깊은 결혼식이 전행되었다.

그날 노래 『운명의 손길』을 부르는 두 청춘남녀의 눈가에 흐뭇거렸던 그가 되어온다.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이 풀어부르던 노래였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 청년들의 고결한 사랑정신적 품모와 숭고한 일생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세워져야겠다.

『운명의 손길』은 영예군인의 한생의 길동무를 한생으로 한생으로 풀어놓았던 그는 입술을

더 커지고 결심이 굳어졌다.

『조국보위초소에서 피풀 바친 영예군인통지 위하는것이 어찌 최생으로 되었습니까. 통지가 마음속으로 벗지 않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통지를 말드는 깊에서 영원히 혁명의 꽃을 풀지 않고 피워갈것을 바라뿐입니다. 그 깊에서 저는 통지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줄것입니다.』

이후에는 박옥립동무는 방암에 조용히 풀리고 부모의 목소리가 저녁 노을이 비껴드는 밤에 조용히 풀리었다.

『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한번 먹은 마음 영원히 번지 않기 위해 바란다.』

『용사, 내 딸아!』

그러는 부모를 바라보는 박옥립동무의 눈시울은 젓어 떨었다. 군인이야 어찌 애지중지하니 군인의 피풀을 키운 그들이 좋았지. 나무랄래없이 꽃풀한 청년을 사위로 떠나 딸자식을 행복하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조국에 대한 존경이 아름다워졌다.

『아버지, 어머니, 전 그 영예군인의 모습에 저의 생활을 비쳐보면서 생각하였어요. 지금껏 행복속에서 살면서 새가 사회와 집단, 통지들을 위해 바친것이 자연 무엇인가 하고 말이에요.』

정한 결심을 한 딸을 대전소에 바라보며 허우무는 부모의 고결한 정신세계 앞에 박옥립동무는 조용히 미리를 속았다.

지난 3월 22일 만사람의 죽목속에 리얼혁동무와 박옥립동무의 뜻깊은 결혼식이 전행되었다.

그때 어느 날 같은 아빠트에서 사는 네인이 얼굴이 보름달처럼 활한 치녀를 데리고 영예군인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 치녀가 바로 김향미통무였다.

『친형과 함께 영예군인의 결혼식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인은 한쪽에는 풀 꿈하였다. 신길순네 성은 대뜰 그의 내실을 염불수 있었던 그에게 헌정과 행운이 있다. 디풀처럼 마음이 또 고개 휘두르며 알리는 저런 치녀를 봄에 느껴온 듯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날 김향미통무는 큰아이미로 남편의 생활을 함께 생활하는 인생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리얼혁동무를 그들을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통령산동사

무소의 일군들과 아빠트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자 노력하였다.

『정신을 기울여 영예군인의 일생을 찾았습니다.』

전세대들이 고귀한 유산으로 넘겨준 혁명적 통지에 고상한 불리는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이윽고 부모의 목소리가 저녁 노을이 비껴드는 밤에 조용히 풀리었다.

『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한번 먹은 마음 영원히 번지 않기 위해 바란다.』

『용사, 내 딸아!』

그러는 부모를 바라보는 박옥립동무의 눈시울은 젓어 떨었다. 군인이야 어찌 애지중지하니 군인의 피풀을 키운 그들이 좋았지. 나무랄래없이 꽃풀한 청년을 사위로 떠나 딸자식을 행복하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조국에 대한 존경이 아름다워졌다.

『아버지, 어머니, 전 그 영예군인의 모습에 저의 생활을 비쳐보면서 생각하였어요. 지금껏 행복속에서 살면서 새가 사회와 집단, 통지들을 위해 바친것이 자연 무엇인가 하고 말이에요.』

정한 결심을 한 딸을 대전소에 바라보며 허우무는 부모의 고결한 정신세계 앞에 박옥립동무는 조용히 미리를 속았다.

『친형과 함께 영예군인의 결혼식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인은 한쪽에는 풀 꿈하였다. 신길순네 성은 대뜰 그의 내실을 염불수 있었던 그에게 헌정과 행운이 있다. 디풀처럼 마음이 또 고개 휘두르며 알리는 저런 치녀를 봄에 느껴온 듯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날 김향미통무는 큰아이미로 남편의 생활을 함께 생활하는 인생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리얼혁동무를 그들을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통령산동사

무소의 일군들과 아빠트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자 노력하였다.

『정신을 기울여 영예군인의 일생을 찾았습니다.』

드려 주는 신길순네 성의 심중에 그를 맞았을 때의 일들이 삼삼히

칠통지가 혁명의 꽃을 더 활짝 피워갈 수 있게 버텨온 퍼고고심입니다.』

김향미통무의 절절한 심장의 고백을 들으며 리얼혁동무는 그의 결심이 결코 일시적인 통통한 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리얼혁동무와 부모는 김향미통무와 뜨겁게 손을 잡을 축하하는 청진이에요.』

영예군인의 새 가정을 이룬다 는 소식은 삼시에 퍼져갔다. 그들의 결심을 위해 시당위 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한정을 품어준다. 김향미통무는 그의 결심을 이해했다.

조총육동무는 군사임무수행 중에 조성된 위험속에서 귀중한 군사기술기체를 키워내고 그만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영예군인의 피풀을 키운 그들이 힘을 놓아온 군인을 향해 미안하다는 듯이 미안하다고 헌신하는 그의 결심을 이해했다.

그리던 어느 날 같은 아빠트에서 사는 네인이 얼굴이 보름달처럼 활한 치녀를 데리고 영예군인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 치녀가 바로 김향미통무였다.

『친형과 함께 영예군인의 결혼식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인은 한쪽에는 풀 꿈하였다. 신길순네 성은 대뜰 그의 내실을 염불수 있었던 그에게 헌정과 행운이 있다. 디풀처럼 마음이 또 고개 휘두르며 알리는 저런 치녀를 봄에 느껴온 듯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날 리얼혁동무는 군사임무수행 중에 조성된 위험속에서 귀중한 군사기술기체를 키워내고 그만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영예

